

# 세월호 가족들, 특별법 제정 위한 전국순회 나서

8 홍미리 기자 | 2014.07.02 13:57

▶ 팽목항·창원·국회앞서 기자회견 “세월호 가족들이 국민을 만나러 갑니다”



▲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2일 오전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제정을 위한 국회서명 진행 및 세월호 가족 전국순회버스 기자회견'을 열고 7월 안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금일부터 12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순회버스를 진행한다. © 변백선 기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해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전국 순회에 나섰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7월 2일부터 7월 12일까지 11일 간 전국을 순회하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순회버스를 진행한다.

7월 안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국민에게 호소하고 천만서명운동을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국민과 함께하기 위한 순회버스다. 유가족들은 두 팀으로 나뉘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서부권과 동부권 끝에서 서울로 올라오며 노동자와 시민들을 만난다.

서부권은 팽목항에서 출발해, 여수·순천·광주·전주·대전·세종·천안·수원·인천·부천·서울로, 동부권은 창원을 나서 김해·부산·울산·포항·대구·청주·원주·의정부·서울로 방향을 잡는다.

가족대책위는 순회 첫날인 7월 2일 오전 11시 순회버스 출발지인 진도 팽목항과 경남 창원(경남도청 앞), 그리고 국회 정문 앞에서 동시에 열어 순회버스 출발을 선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국회는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하고 성실한 국정조사와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들은 “우리는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지 않을 것이며,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듣고 우리 곁을 떠나야 했던 아이들의 목소리가 되어 국민을 만나러 갈 것”이라고 전하고 “오늘 진도에서, 창원에서 전국을 순회하는 세월호가족버스가 출발한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또 “우리 가족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천 개의 바람이 된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천만인의 서명을 받을 것”이라면서 “진실을 향해 아무 것도 묻지 않는다면 아무 것도 달라질 수 없고,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사를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하고 “우리의 발걸음은 무겁고 힘겹지만 멈출 수는 없다”고 선언했다.

#### 전국 순회 일정

- 서부권 : 팽목항·여수·순천(2~3일), 광주(4~5일), 전주(6~7일), 대전·세종(8일), 천안(9일), 수원(10일), 인천(11일), 부천·서울(12일)
- 동부권 : 창원·김해(2~3일), 부산(4~5일), 울산(6~7일), 포항(8일), 대구(9일), 청주(10일), 원주(11일), 의정부·서울(12일)
- 제주·속초(5일)

※ <노동과세계>는 7월 2일부터 세월호 가족들이 전국 지역을 순회하며 노동자와 국민을 만나는 현장의 모습을 전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전체 조합원의 서명을 조직하자고 결의한 바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일하는 노동현장도 찾아갑니다. 민주노총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